

올해 3조7121억원 규모 창업지원사업 시행

전북중기청, 중앙부처·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따라

중앙부처 11·지자체 88개 등 총 99개 기관이 397개 창업지원 추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은 지난 4일 총 3조7,121억원 규모의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가 발표됐다고 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예비)창업자에게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 20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22년부터는 중앙부처

와 지자체(광역, 기초)에서 운영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도 포함하여 통합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99개 기관, 총 397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되었고, 전체 예산은 3조7,121억원으로 전년(3조6,807억원) 대비 514억원(1.4%)이 증가하였다.

이는 창업지원사업 예산이 역대 최대였던 2022년 예산(3조6,668억원)보

다 453억원(1.2%)이 더 많은 규모이다.

기관별로 중앙부처 중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3조4,038억원(용자 2조458억원 포함, 중앙부처의 95.6%), 지자체 중에는 서울시가 385억원(지자체의 25.5%)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지원사업 유형별로는 용자·보증이 2조546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

(55.3%)을 차지하고, 이어서 사업화(7,931억원, 21.4%), 기술개발(5,442억원, 14.7%)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단일사업으로는 민관이 공동으로 유망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틱스프로그래밍으로, 전년 대비 933억원이 늘었다.

또한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인재의 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8개 많아지고 예산도 273억원 증가했다. 더불어 제도전 활성화를 위해 재창업 용자자금을 250억원 증액(2023년 750억원 → 2024년 1,000억원)했다.

/김옥기 기자



익산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김진년 신년인사회가 지난 4일 익산웨스턴라이프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개최됐다.

김진년 새해 새 각오 다짐

익산상의, 2024년 신년 인사회 개최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김원요)에서 주최한 김진년 신년인사회가 지난 4일 익산웨스턴라이프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김원요 회장을 비롯해,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정현을 익산시장,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김수홍 국회의원, 한병도 국회의원, 정덕성 육군부사관학교장, 김종탁 제7공수여단장, 김대중·김정수·윤영숙·한정수 도의원, 주방식 익산시 원로회장, 정호석(주)하림 대표이사 등 각 기관·단체장과 지역상공인 및 지역사회 지도급 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2024년 새해 새 각오를 다지는 장이 됐다.

상에서는 양희준 명예회장, 최병선 전임회장, 김양섭 부회장을

비롯한 상의의원 20명, 주요 회원업체 20여명 등이 참석해서 자리를 함께 했다.

김원요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올해도 낙담하지 않는 현실이지만 새로운 희망을 품고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차게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신년인사회 식전행사로 개최된 제27회 익산상공대상 수상자로 △상공인부문에 (주)상진 최형산 회장 △관리자부문에 전북은행 익산지점 박종삼 센터장이 수상했으며 상공업에 기여한 공로로 김중신 익산경찰서장, 윤재원 익산세무서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익산=이재춘기자

“학교급식활성화 농협의 책무이자 의무”

고산농협, 학교·공공급식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농협경제지주 전북본부(본부장 김영일)는 지난 5일, 고산농협(조합장 손병철)에서 학교·공공급식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고산농협에게 시상할 전달식을 가졌다.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대회는 학교·공공급식 시장 및 정책에 대응해 선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전곡농·축협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나아가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로서 농협의 사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서는 14건의 접수사례 중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5건에 대한 발표심사가 진행됐으며 △사업방식의 우수성 △우수사례로서의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산농협은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김영일 본부장은 “전라북도의 미래인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사업 활성화는 농협의 책무이자 의무이다. 앞으로도 전북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신선하고 든든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과 저탄소 식생활 모색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2024년 해양수산가족 신년인사회 참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지난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유인하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과 이만우 실장을 만나 지구온난화 악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인류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먹거리 탄소중립 실천 ‘저탄소 식생활’ 확산 방안을 모색했다고 5일 밝혔다.

UN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공사는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85개국 620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어,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해양수산부·한국수산업총연합회·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가 주최한 ‘2024년 해양수산가족 신년인사회’



에 참석해 전국 수산·해양인들과 교류의 장을 갖고 한국 농수산식품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지난해 대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수산식품 수출 역사상 단일품목 최초로 김 수출 1조원 시대를 열었다”며, “도전과 노력을 멈추지 않으신 수산·해양인들의 팔과 열정이 모여 이뤄낸 결실”이라고 밝혔다.

/김재훈기자

또한, “탄소저장고인 바다와 저탄소 건강식품인 수산물은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육성과 소비 촉진에 힘써 먹거리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 하는데 힘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LX, 종합청렴도 2년 연속 우수등급 달성

LX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이태용)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등급인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33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청렴제도와 청렴노력

도 부패사건을 합산한 점수로 평가하는 것이다.

LX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상호인식 프로그램의 도입(22년)에 이어 기관장이 주관하여 업무별 부패취약분야 분석·맞춤형 대책(23년)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온 결과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얻었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과수화상병 상황 관제시스템’ 구축

농진청, 시군 농기센터 등 관리 통합...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피해를 줄이고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과수화상병 현황정보’를 통합·운영한다.

이를 위해 ‘과수화상병 상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1월 말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도원과 시군 센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ncrms.rda.go.kr)을 통해 과수화상병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내 과수원을 주기적으로 예방관찰(예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예방 관찰 결과를 현장에서 즉시 이동통신 기기에 입력하면 과수화상병 상황 관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점검이 가능하다.

민약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약제살포, 매몰지 또는 방제 구역 설정, 인근 과수원 확산 여부 및 발생 위험도 예측 등 관련 상황을 실시간 관제함으로써 신속한 대응과 방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손찬수 농진청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현재는 각도 및 시군 별로 과수화상병 상황정보를 조사하고 취합해 농진청에 제공하면 이를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시스템을 통해 과수화상병 예방관찰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현장 정보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